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3차 모의평가 문제지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필적 확인란 문구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될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대명사 가운데 우리가 늘 쓰면서도 잘 따져 보지 않는 몇 가지 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여 주며) 먼저 이 문장을 보시죠.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축제를 성공시킵시다.’ 학생회장이 전교생 앞에서 한 말인데요, 이 말을 ‘저희 모두 힘을 모아 축제를 성공시킵시다.’로 바꾸면 어떤가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네, 많은 분이 어색하다고 하시네요. ‘저희’는 ‘우리’의 낮춤말로, 말하는 이가 듣는 이 앞에서 자기 쪽을 낮추는 말입니다. 그러니 듣는 이를 포함하는 자리에서는 쓰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저희’ 받은 이번 축제에서 연극을 합니다.’처럼 듣는 이를 **뺀** 말하는 이 쪽만 가리킬 때는 ‘저희’가 자연스럽지요.

그런데 ‘우리’에는 더 흥미로운 쓰임이 있습니다. 형제가 없는 친구도 ‘우리 엄마’라고 말합니다. 가리키는 대상은 한 사람의 어머니인데 복수의 형태를 쓰는 것이지요. 제가 참고한 문법서에서는 이를 ‘우리’의 단수적 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학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내 학교, 내 나라’라고 하면 어딘가 어색합니다. 문법서는 그 까닭을, ‘우리’의 꾸밈을 받는 말이 가족이나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어 가지는 대상이라는 데서 찾았습니다. 논문이나 논설문에서 글쓴이 한 사람이 자신을 ‘우리’라고 부르는 것도 단수적 용법인데, 이때는 서술을 객관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넘기며) 다음은 앞에 나온 주어를 다시 가리키는 말, 곧 재귀 대명사입니다. ‘철수는 자기 동생을 매우 귀여워한다.’의 ‘자기’가 그 예입니다. 재귀 대명사에는 ‘자기’ 말고도 ‘저’와 ‘당신’이 있는데, 쓰임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처럼 주로 속담에 남아 있는 약간 낮은 투의 말로, 앞의 주어가 낮춤의 의미를 띠 때 더 어울립니다. ‘당신’은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처럼 앞의 주어가 높임의 대상일 때 씁니다. 이 문장의 ‘당신’은 ‘자기’로 바꿀 수 있지만 ‘저’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의 ‘당신’과 소리는 같아도 쓰임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를 하나 내 보겠습니다. (억양을 달리하여 두 번 읽으며) ‘누가 왔니?’ ‘누가 왔니?’ 두 번 다 같은 문장인데 뜻도 같았을까요? 처음처럼 ‘누’에 힘을 주고 끝을 내리면 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말이 되고, 두 번째처럼 ‘누’에 힘을 주지 않고 끝을 올리면 누군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묻는 말이 됩니다. 앞의 것을 미지칭, 뒤의 것을 부정칭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대명사는 형태가 같아도 상황과 말투에 따라 가리키는 범위가 달라지는 말입니다. 오늘 소개한 쓰임을 떠올리며 여러분이 평소 쓰는 대명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의 순서를 처음에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 전개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② 청중에게 질문을 던진 뒤 청중의 답을 직접 들어 발표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
- ③ 참고한 문법서와 상반된 견해를 함께 소개하여 내용의 균형을 갖추고 있다.
- ④ 같은 문장을 다르게 발음하여 들려준 뒤 그 차이를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한 뒤 청중이 참고할 추가 자료를 안내하고 있다.

2. 다음은 학생이 발표를 준비하며 작성한 메모이다. ㄱ~ㄴ 중 발표에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청중이 직접 어색함을 느껴 보도록, 실제 상황에서 쓰인 문장의 일부를 바꾸어 제시해야지.
 ㄴ. 재귀 대명사 ‘당신’이 같은 소리의 다른 대명사와 혼동될 수 있음을 짚어 주어야지.
 ㄷ. 단수적 용법의 ‘우리’가 쓰이는 까닭에 대해, 문법서의 설명과 다른 나의 해석을 덧붙여야지.
 ㄹ. ‘누구’뿐 아니라 ‘무엇’, ‘어디’도 억양에 따라 미지칭과 부정칭으로 달리 해석됨을 예로 보여 주어야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3. 발표를 들은 학생이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며 학생들에게) 우리 모두 오늘 수업을 열심히 해 봅시다.
 ㉡ (전학 온 학생이 담임 선생님께) 저희 집은 학교에서 꽤 멀어요.
 ㉢ 어머니는 당신이 젊었을 때 입던 옷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다.
 ㉣ 동생은 제 방은 늘 어질러 놓으면서 내 방을 두고는 잔 소리를 한다.
 ㉤ (전화를 받은 형이 방금 집에 들어온 동생에게) 누가 찾아왔어?

- ① ㉠의 ‘우리’는 듣는 이를 포함하므로, ‘저희’로 바꾸어 쓰면 어색하겠군.
- ② ㉡의 ‘저희’는 듣는 이인 선생님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자연스

럽게 쓰였군.

- ③ ㉔의 '당신'은 높임의 대상인 앞의 주어를 다시 가리키므로, '자기'로 바꾸어 쓸 수 있겠군.
- ④ ㉔의 '제'는 앞의 주어 '동생'을 다시 가리키는 말로, '자기'로 바꾸어 쓸 수 있겠군.
- ⑤ ㉔의 '누가'는 끝을 올려 말하면,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미지칭으로 쓰인 것이겠군.

[4~6] (가)는 도서관 청소년 운영 위원 선발 면접의 일부이고, (나)는 면접을 지켜본 학생들의 반응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면접관 1: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시립 도서관 청소년 운영 위원 선발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㉑ 제출하신 활동 계획서를 중심으로 질문드리고, 답변에 따라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면접은 6분 동안 진행됩니다.

면접관 2: 먼저 활동 계획서에 쓰신 제안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지원자: 저는 '다시 읽는 책 교환대'를 제안했습니다. 도서관 1층 로비에 교환대를 두고, 다 읽은 책을 놓고 가면 다른 책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집에 읽지 않는 책이 쌓여 있다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책들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읽히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관 1: ㉒ 교환대에 놓이는 책이 어떤 책이어야 하는지, 기준을 정해 두셨나요?

지원자: 네. 낙서나 훼손이 심하지 않은 책, 출간된 지 10년이 넘지 않은 책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운영 위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 교환대를 점검해, 기준에 맞지 않는 책은 따로 모으려고 합니다.

면접관 2: ㉓ 일주일에 두 번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학기 중에 그 일정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운영 위원 한 사람이 맡는 부담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지원자: 운영 위원이 여덟 명이니 두 명씩 조를 짜면 한 사람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맡게 됩니다. 한 번 점검하는 데에는 30분이면 충분하다고 사서 선생님께 확인했습니다.

면접관 1: 그렇군요. 그런데 교환대에 책을 두기만 하고 가져가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원자: 그 부분도 생각해 두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책은 인근 아동 센터에 기증하겠습니다. 또 책마다 앞서 읽은 사람이 쓴 한 줄 추천 쪽지를 끼워 두면, 다음 사람이 책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면접관 2: ㉔ 한 줄 추천 쪽지는 흥미로운데요, 다른 도서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지원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웃 시의 한 도서관이 '추천 쪽지 책꽂이'를 운영한 뒤 대출이 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면접관 1: ㉕ 마지막으로, 운영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원자 본인이 가장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지원자: 제 제안이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계획과 실행 사이의 거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을 매개로 모르는 사람들과 이어지는 경험을 해 보고 싶습니다.

면접관 1: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면접을 마치겠습니다.

(나)

학생 1: 지원자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한 건 좋았어. 하지만 면접 전에 수치를 확인해 두었다면 답변이 더 설득력 있었을 거야.

학생 2: 점검 부담을 묻는 질문에 사서 선생님께 확인한 내용을 덧붙여 답한 것처럼, 나도 면접을 준비할 때 내 답변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겠어.

학생 3: 책을 두기만 하고 가져가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질문은 활동 계획서에 없던 내용이었는데, 지원자가 미리 생각해 둔 방안으로 답한 점이 인상적이었어.

학생 4: 마지막 질문에 지원자가 배우고 싶은 점만 말했는데, 운영 위원으로서 도서관에 기여할 수 있는 점도 함께 말했다면 균형 잡힌 답변이 되었을 것 같아.

4. ㉑~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㉑ ㉑: 면접의 진행 방식과 시간을 안내하며 지원자에게 진행 방식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
- ㉒ ㉒: 지원자가 소개한 제안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두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 ㉓ ㉓: 지원자의 앞선 답변에서 서로 모순되는 부분을 지적하며 답변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 ㉔ ㉔: 지원자가 제시한 방안의 한계를 언급하며 이를 보완할 대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 ㉕ ㉕: 앞선 답변들의 내용을 요약한 뒤 이를 근거로 지원자의 활동 계획을 평가하고 있다.

5. <보기>는 지원자가 면접을 준비하며 작성한 메모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지원자가 세운 계획 중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발 공고의 평가 기준> ㉑ 실현 가능성 ㉒ 지속 가능성 ㉓ 기대 효과

- ㉑ · 위원 8명, 2인 1조 → 1인당 월 2회 점검
· 점검 소요 시간은 사서 선생님께 확인
- ㉒ · 오래 남는 책 → 한 달 뒤 아동 센터 기증
· 교환대 이용 규칙 안내문을 로비에 게시
- ㉓ · 추천 쪽지 사례 → 이웃 시 도서관 기사
· 사례 도서관의 대출 증가 수치

- ㉑ ㉑에 대해, 위원의 조 편성에 따른 1인당 점검 횟수를 제시해야지.
- ㉒ ㉒에 대해, 점검에 걸리는 시간을 사서 선생님께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들어야지.
- ㉓ ㉓에 대해, 교환대 이용 규칙을 안내하는 게시물을 로비에 붙이겠다는 계획을 밝혀야지.
- ㉔ ㉔에 대해, 오랫동안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책을 처리하는 방법을 밝혀야지.
- ㉕ ㉕에 대해, 비슷한 방식을 운영한 도서관의 사례를 다룬 기

사를 근거로 들어야지.

6.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 1’은 지원자의 답변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답변 준비에서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지원자의 답변 방식을 자신의 면접 준비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면접관의 질문이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 ④ ‘학생 4’는 지원자의 답변에 덧붙였으면 하는 내용을 제시하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학생 2’는 점검 부담에 관한 지원자의 답변이 면접관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7. <보기>를 바탕으로 ㄱ~ㅌ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피동문은 피동사에 의한 것과 ‘-어지다’에 의한 것이 있다.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은 능동문의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는 ‘에게/한테’나 ‘에’가 붙은 부사어가 된다. 이때 능동문의 주어가 유정 명사이면 ‘에게/한테’가, 무정 명사이면 ‘에’가 붙는다. 다만 피동사에 따라서는 ‘에게/한테, 에’ 대신 ‘에 의해(서)’를 취해야 자연스러운 것도 있다. 한편 피동사는 자동사인 것이 원칙이나 목적어를 취하여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또 능동문과 피동문의 대응은 엄격하게 규칙화되지 않아서, 대응하는 피동문이 없는 능동문이나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도 있다. ‘-어지다’는 별다른 제약 없이 거의 모든 동사에 쓰일 수 있다.

- ㄱ. 그 선수는 상대 수비수에게 발목을 잡혔다.
 ㄴ. 바닷가 마을이 태풍에 휩쓸렸다.
 ㄷ. 동생이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다.
 ㄹ. 산허리에 굴이 인부들에 의해 뚫렸다.
 ㅌ. 오늘은 책이 잘 읽힌다. / 오늘은 책이 잘 읽어진다.

- ① ㄱ의 ‘잡혔다’는 목적어 ‘발목을’과 함께 쓰였지만 피동사이므로 자동사로 쓰인 것이겠군.
 - ② ㄴ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태풍이 바닷가 마을을 휩쓸었다.’가 되는데, 이때의 주어가 무정 명사이므로 피동문에서 ‘에’가 붙은 것이겠군.
 - ③ ㄷ의 ‘들었다’에 대응하는 피동문으로 ‘칭찬이 동생에게 들었다.’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겠군.
 - ④ ㄹ의 ‘에 의해’를 ‘에게’로 바꾸어도 자연스러우므로, ‘뚫리다’는 ‘에게’를 취하는 피동사이겠군.
 - ⑤ ㅌ을 보니, ‘-어지다’는 대응하는 피동사가 있는 동사에는 붙을 수 없겠군.
8. <보기>의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학습 자료] 15세기 국어에서는 문장의 주어가 화자 자신일 때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오-’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 ‘-오-’는 ‘-느-’와 결합하면 ‘-노-’로, ‘-더-’와 결합하면 ‘-다-’로 나타난다. 한편 의문문의 주어가 2인칭일 때에는 의문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종결 어미 ‘-니다’가 쓰였다. 듣는 이를 아주 높일 때에는 선어말 어미 ‘-이-’가, 객체를 높일 때에는 선어말 어미 ‘-습-’ 등이 쓰였다.

- ㉠ 내 도늘 가져 다론 나라해 가 흥정하야 오고져 호노이다
 [내가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장사하여 오고자 합니다.]
 ㉡ 네 엇데 안다 [네가 어찌 알았는가?]
 ㉢ 내 지비 이서 날마다 옹빅 승쟁하더라 [내가 집에 있어 날마다 오백 승쟁하더라.]
 ㉣ 알피 부터 업스시고 뒤혜 중님 업거늘 뉘 게 절하느다
 [앞에 부처가 없으시고 뒤에 스님이 없거늘, 누구에게 절하는가?]
 ㉤ (어마니미 ... 승쟁하시더라) 듣고 저습노라 [(어머님이 ... 승쟁하시더라) 듣고 절한다.]

- 「월인석보」 -

- ① ㉠의 ‘호노이다’에서 ‘-노-’는 ‘-느-’와 ‘-오-’가 결합한 것으로, 문장의 주어가 화자 자신임을 보여 주는군.
- ② ㉡와 ㉣는 모두 의문사가 쓰인 의문문이며, 주어가 2인칭이므로 ‘-니다’로 문장을 끝맺었군.
- ③ ㉢의 ‘승쟁하더라’에서 ‘-다-’는 ‘-더-’와 ‘-오-’가 결합한 것으로, 문장의 주어가 화자 자신임을 보여 주는군.
- ④ ㉠와 ㉤는 모두 화자가 주어진 문장이며, 두 문장 모두 듣는 이를 아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실현되어 있군.
- ⑤ ㉢와 ㉤를 비교하면, 화자 자신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오-’가 앞에 오는 선어말 어미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군.

9. <보기>를 바탕으로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결다 「동사」

[1] 【…에 …을】 벽이나 못 따위에 어떤 물체를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올려놓다. ♣ 그는 거실 벽에 가족사진을 걸었다.

[2] 【…에/에게 …을】 앞으로의 일에 대한 희망 따위를 품거나 기대하다. ♣ 우리는 이번 대회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3] 【…에게 …을】 말이나 수작 따위를 붙이다. ♣ 낯선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4] 【…을】 문 따위를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지르다. ♣ 그는 대문을 걸고 잠자리에 들었다.

- ① ‘결다[1]’은 부사격 조사 ‘에’를, ‘결다[3]’은 ‘에게’를 취한다는 차이가 있으므로, 두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로 다르다.
 ② ‘결다[2]’는 필수적 부사어에 쓰이는 조사가 ‘에’와 ‘에게’ 중 하나로 실현될 수 있지만, 서술어의 자릿수는 세 자리이다.
 ③ ‘결다[4]’는 주어와 목적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④ ‘그는 현관에 문패를 걸었다.’는 ‘결다[1]’의 용례로 추가할 수 있다.
 ⑤ ‘결다[2]’와 ‘결다[4]’는 모두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지는 서로 다르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자료 1] 국어 단어의 정립 기준은 자립성과 분리성이다. 조사는 의존 형태소이지만, 자립 형태소에 붙고 앞말과 쉽게 분리될 수 있어 ‘철수만이’처럼 그 앞에 다른 조사가 끼어들 수도 있다.) 단어로 인정된다. 의존 명사나 보조 용언은 자립성이 없지만, 자립 형태소가 나타나는 환경에 나타나고 의미가 완전히 문법적이지는 않으므로 ‘준자립 형식’으로서 단어의 테두리 안에 든다. 반면 ‘사람들이’의 ‘들’처럼 모든 명사에 붙지 못하는 것은 보편성이 없어 단어의 자격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정립된 단어는 어절과 구별되는데, ‘읽었다’는 한 어절 한 단어이고 ‘철수가’는 한 어절 두 단어이다.

[자료 2] 한글 맞춤법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 ① 조사는 [자료 1]에서 단어로 인정되지만 제41항에 따라 앞말에 붙여 쓰므로, 단어라고 해서 모두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은 아니겠군.
 ② ‘먹을 것이 많다’의 ‘것’은 자립성이 없지만 [자료 1]에서 단어로 처리되므로, 제2항과 제42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쓰겠군.
 ③ ‘사람들이’의 ‘들’은 [자료 1]에서 단어로 인정되지 않는데, 이 ‘들’을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은 제41항에 따른 것이겠군.
 ④ ‘먹어 보아라’의 ‘보아라’는 [자료 1]의 준자립 형식에 해당하

며, 제47항에 따라 ‘먹어보아라’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겠군.

- ⑤ ‘철수만이’는 한 어절이지만 [자료 1]에 따르면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한 덩어리로 붙여 쓰는 것은 조사를 앞말에 붙여 쓰기 때문이겠군.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화의 이미지는 카메라가 대상을 기록한 결과이면서, 동시에 편집을 거쳐 배열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영화의 의미는 무엇에 근거하여 생겨나는가? 이 물음에 대해 소련의 감독이자 이론가였던 에이젠슈타인과 프랑스의 비평가 바쟁은 서로 다른 답을 내놓았다.

에이젠슈타인에게 하나의 쇼트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완결되지 않은 재료였다. 두 쇼트가 이어지면 관객은 둘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부딪치는 데서 제3의 의미를 만들어 낸다. 그는 이를 한자의 결합에 견주었다. ‘눈’을 그린 글자와 ‘물’을 그린 글자가 합쳐져 ‘울다’라는 뜻을 나타내듯, 각각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두 기호가 결합하면 어느 쪽에도 없던 추상적 개념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콜레쇼프의 실험에서도 뒷받침되었다. 같은 배우의 무표정한 얼굴 쇼트를 수프 접시, 관 속의 아이, 소파에 누운 여인의 쇼트 뒤에 각각 이어 붙이자, 관객은 같은 얼굴에서 배고픔, 슬픔, 욕망을 읽어냈다. 에이젠슈타인에게 이는 쇼트의 의미가 쇼트 안에 아니라 쇼트들 사이의 관계에 있다는 증거였다. 따라서 감독의 일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찍는 것보다 쇼트들의 관계를 설계하는 것이며, 관객은 감독이 설계해 둔 경로를 따라 하나의 개념에 이르게 된다.

바쟁은 사진적 이미지가 생겨나는 방식에서 출발하였다. 영화는 화가의 손을 거쳐 만들어지지만, 사진은 대상에서 나온 빛이 필름에 자국을 남기는 기계적 과정으로 만들어진다. 바쟁이 주목한 것은 사진이 대상을 얼마나 닮았는가가 아니라, 사진의 이미지가 대상과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때문에 사진 앞에서 우리는 그 대상이 실제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믿게 된다. 영화의 힘이 이 믿음에서 나온다면, 영화는 현실이 지닌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을 존중해야 한다. 여기서 바쟁은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 한 장면의 핵심이 둘 이상의 요소가 동시에 함께 있다는 사실에 달려 있을 때에는 몽타주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사냥꾼과 물개가 마주하는 장면을 사냥꾼 쇼트와 물개 쇼트로 따로 찍어 이어 붙이면, 관객은 둘이 같은 공간에서 마주했다는 사실을 믿을 근거를 잃는다. 반면 장면의 핵심이 동시성에 있지 않다면 쇼트를 나누어 이어 붙이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 또한 동시성이 핵심인 장면이라 하더라도, 두 요소를 한 화면에 함께 담은 쇼트가 이어져 둘이 함께 있었음을 확인해 준다면 그 앞뒤의 쇼트를 나누어 이어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쟁은 화면의 앞쪽에 있는 사물과 뒤쪽에 있는 사물을 모두 선명하게 보여 주는 딥 포커스와, 쇼트를 끊지 않고 길게 찍는 롱테이크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 기법들은 관객이 화면의 어디를 볼지 스스로 고르게 하여, 현실이 본래

지닌 모호함을 화면에 그대로 남긴다. ㉠그러므로 바쟁에게 롱테이크로 찍힌 장면은 몽타주로 이어 붙인 장면보다 오히려 더 많은 해석의 여지를 지닌다.

두 사람의 대립은 흔히 편집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영화의 의미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에이젠슈타인에게 의미는 쇼트와 쇼트 사이에서 생겨나고, 바쟁에게 의미는 이미지가 대상과 맺고 있는 관계에서 생겨난다. 바쟁 역시 편집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편집을 허용한 범위는 언제나 이미지와 대상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데까지였다.

1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이젠슈타인은 하나의 쇼트를 그 자체로 의미가 완결되지 않은 재료로 보았다.
- ② 바쟁은 사진이 대상의 모습을 회화보다 더 정확하게 담게 재현한다는 점에서 사진적 이미지의 가치를 찾았다.
- ③ 쿨레쇼프의 실험에서 관객이 읽어 낸 감정은 배우의 얼굴 쇼트 자체에 담겨 있던 것이 아니었다.
- ④ 바쟁은 장면의 핵심이 여러 요소의 동시성에 있지 않다면 쇼트를 나누어 이어 붙이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 ⑤ 에이젠슈타인과 바쟁의 대립은 편집의 유무보다 영화의 의미가 생겨나는 곳에 대한 견해 차이에 가깝다.

1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롱테이크는 현실의 시공간적 연속성을 존중하므로, 둘 이상의 요소가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관객이 믿게 하기 때문이다.
- ② 사진적 이미지는 대상과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어, 관객에게 대상이 실제로 거기에 있었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이다.
- ③ 몽타주에서는 쇼트들이 부딪쳐 어느 쪽에도 없던 의미가 생겨나므로, 이어 붙인 쇼트의 수만큼 해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④ 롱테이크로 찍힌 장면에서는 감독이 쇼트들의 관계를 설계하지 않으므로, 화면에서 어떤 개념도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 ⑤ 의미에 이르는 길을 이미지의 배열이 미리 정해 두느냐, 보는 이의 선택에 맡겨 두느냐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은 우물가에서 놀던 어린 소년이 등 뒤 풀숲에서 독사가 다가오는 것을 모른 채 웃고 있는 상황을 담고 있다. 감독은 이 장면을 세 가지 방식으로 찍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A안: 소년의 웃는 얼굴 쇼트와 풀숲을 기어 오는 뱀 쇼트를 따로 찍어 번갈아 이어 붙인다.

B안: 소년을 화면 앞쪽에, 풀숲의 뱀을 화면 뒤쪽에 두고 둘을 모두 선명하게 한 화면에 담아 끊지 않고 찍는다.

C안: A안처럼 두 쇼트를 번갈아 이어 붙인 뒤, 마지막에 소년과 뱀이 한 화면에 함께 담긴 쇼트를 덧붙인다.

- ① 에이젠슈타인의 관점에서 A안은 웃는 얼굴과 다가오는 뱀이 부딪치는 데서 어느 쇼트에도 없던 ‘위기’라는 개념을 만들어 낼 수 있겠군.
- ② 바쟁의 관점에서 이 장면의 핵심이 소년과 뱀이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데 있다면, A안은 금지되어야 할 몽타주에 해당하겠군.
- ③ 바쟁의 관점에서 C안은 마지막 쇼트가 소년과 뱀이 함께 있었음을 확인해 주므로, 그 앞의 쇼트들을 나누어 이어 붙인 것도 허용될 수 있겠군.
- ④ 바쟁의 관점에서 B안은 두 요소를 한 화면에 담아 동시성을 보존하지만, 관객이 화면에서 무엇을 먼저 볼지를 감독이 정해 준다는 점에서는 A안과 다르지 않겠군.
- ⑤ 쿨레쇼프의 실험에 비추어 보면, A안에서 관객이 소년의 웃음을 위함을 모르는 천진함으로 읽는 것은 웃는 얼굴 쇼트가 뱀 쇼트와 이어졌기 때문이겠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경 세포는 축삭을 따라 신호를 활동 전위의 형태로 전달한다. 휴지 상태에서 축삭의 막 안쪽은 바깥쪽보다 전위가 낮은데, 이때의 막전위를 휴지 전위라 한다. 막의 한 지점이 탈분극되어 막전위가 일정한 값, 곧 역치에 이르면, 그 지점의 막에 있는 전압 개폐 나트륨 통로가 일제히 열리기 시작한다. 열린 통로로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막전위는 급격히 높아지는데, 이 변화는 막전위가 역치를 넘기만 하면 처음 자극의 세기와 관계없이 언제나 같은 크기로 일어난다. 이하에서는 어떤 지점의 막전위가 역치에 이르러 활동 전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그 지점이 ‘점화’된다고 부르기로 한다.

전압 개폐 나트륨 통로는 휴지 상태에서는 닫혀 있고 막전위가 역치에 이르면 열릴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열린 통로는 곧 다시 닫히는데, 이렇게 닫힌 통로는 막전위가 휴지 전위 가까이 회복될 때까지는 막전위가 역치를 넘더라도 다시 열리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방금 점화된 지점은 한동안 다시 점화되지 않으며, 신호는 지나온 쪽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나아간다.

점화된 지점에서 생긴 전위 변화는 축삭 내부를 따라 흐르는 전류에 의해 이웃 지점으로 퍼져 그 지점을 탈분극시킨다. 이

때 전류의 일부는 막을 통해 바깥으로 새어 나가므로, 전위 변화는 점화된 지점에서 떨어질수록 작아진다. 축삭 내부의 물질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내부 저항이라 하는데, 같은 물질이라면 내부 저항은 축삭의 단면적에 반비례하므로 축삭의 지름이 커지면 내부 저항은 작아진다. 한편 막이 전류가 새어 나가는 것을 막는 정도를 막 저항이라 한다. 전위 변화가 퍼지면서 줄어드는 정도는 **길이 상수**로 나타내는데, 전위 변화는 길이 상수만큼의 거리를 퍼질 때마다 직전 크기의 약 37 %로 줄어든다. 길이 상수는 막 저항이 내부 저항의 몇 배인가에 따라 정해지며, 이 배수가 클수록 길이 상수는 길어진다. 또 막은 전하를 붙잡아 두는 성질이 있어서, 막의 전기 용량이 클수록 같은 크기의 전위 변화를 만드는 데 더 많은 전하가 필요하다.

축삭은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 무수 신경에서는 축삭의 막 전체에 나트륨 통로가 고르게 분포하여, 바로 옆의 지점들이 차례로 점화되며 신호가 이어진다. 무수 신경이 신호를 더 빠르게 전달하려면 축삭의 지름을 키워야 한다. ㉡ 유수 신경에서는 미엘린이 축삭을 여러 겹으로 감싸 막 저항을 크게 높이고 막의 전기 용량을 크게 낮춘다. 나트륨 통로는 미엘린 사이로 축삭이 드러난 랑비에 결절에 밀집해 있으므로, 점화는 결절에서만 일어나고 결절 사이에서는 전위 변화가 퍼지기만 한다. 결절 1이 점화되면 그 전위 변화가 미엘린으로 덮인 구간을 지나 결절 2에 이르고, 결절 2의 막전위가 역치에 이르면 결절 2가 점화된다. 이때 결절 2에서 생긴 전위 변화는 결절 1 쪽으로도 퍼지지만, 결절 1의 통로는 아직 다시 열리지 않으므로 신호는 결절 3 쪽으로만 나아간다. 이처럼 ㉠과 ㉡은 모두 점화된 지점의 전위 변화가 축삭 내부를 따라 퍼져 다음 지점을 역치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을 거친다.

휴지 전위가 -70 mV, 역치가 -55 mV인 유수 신경에서 점화된 결절의 막전위가 +30 mV까지 오른다고 하자. 이때 점화된 결절의 전위 변화는 100 mV이고, 다음 결절은 15 mV만큼만 탈분극되어도 점화된다. 결절 사이의 간격이 길이 상수와 같다면 다음 결절에는 약 37 mV의 전위 변화가 도달하므로, 다음 결절은 충분히 점화된다. 결절 사이의 간격을 넓히면 한 번에 더 먼 거리를 건너뛰게 되어 신호를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으나, 길이 상수가 그대로라면 다음 결절에 도달하는 전위 변화는 그만큼 작아진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막전위가 역치를 넘어서게 한 자극이 클수록 점화된 지점의 막전위는 더 높이 올라간다.
- ② 방금 점화된 지점의 나트륨 통로는 막전위가 휴지 전위 가까이 회복되기 전에는 막전위가 역치를 넘어도 열리지 않는다.
- ③ 같은 물질로 된 축삭이라면 단면적이 넓은 축삭일수록 내부 저항이 작다.
- ④ 막의 전기 용량이 큰 축삭일수록 같은 크기의 전위 변화를 만드는 데 더 많은 전하가 필요하다.
- ⑤ 유수 신경에서 나트륨 통로는 미엘린으로 덮인 부분보다 랑비에 결절에 밀집해 있다.

15. **길이 상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점화된 지점에서 퍼져 나간 전위 변화가 이웃 지점을 역치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최대 거리이다.
- ② 미엘린이 막의 전기 용량을 낮추면 막 저항과 관계없이 길이 상수가 길어진다.
- ③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축삭의 지름이 작아지면 길이 상수는 짧아진다.
- ④ 길이 상수가 두 배가 되면 점화된 지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 도달하는 전위 변화도 두 배가 된다.
- ⑤ 막 저항이 커지면 막을 통해 새어 나가는 전류가 많아져 길이 상수가 짧아진다.

1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점화된 지점의 전위 변화가 축삭 내부를 따라 이웃 지점으로 퍼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 ② ㉠에서 결절 2의 나트륨 통로가 일제히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은, ㉠에서 이웃 지점이 점화되는 순간과 마찬가지로 그 지점의 막전위가 역치에 이른 순간이다.
- ③ ㉡에서 결절 사이의 미엘린으로 덮인 구간은 차례로 점화되면서 결절과 결절 사이의 신호를 이어 준다.
- ④ ㉠에서 결절 2가 점화되면 그 전위 변화가 결절 1에 이르러 결절 1이 다시 점화되므로 신호는 양쪽으로 퍼진다.
- ⑤ ㉠이 신호를 더 빠르게 전달하려면 축삭의 지름을 줄여 내부 저항을 높여야 한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연구자는 유수 신경의 두 축삭 X와 Y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두 축삭 모두 휴지 전위는 -70 mV, 역치는 -55 mV이며, 점화된 결절의 막전위는 +30 mV까지 오른다.

구분	X	Y
축삭의 지름	10 μm	12 μm
길이 상수	2 mm	1.5 mm
결절 사이의 간격	2 mm	3 mm
축삭 전체의 길이	40 cm	60 cm

연구자는 다음 결절에 도달한 탈분극의 크기에서 그 결절이 역치에 이르는 데 필요한 탈분극의 크기를 뺀 값을 ‘도달 여유’라 부르기로 하였다.

(단, 결절 사이에서 전위 변화가 줄어드는 정도는 길이 상수로만 정해지며, 제시된 것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X에서 한 결절이 점화되면 다음 결절에는 약 37 mV의 탈분극이 도달하므로, X의 도달 여유는 약 22 mV이다.
- ② Y에서는 결절 사이의 간격이 길이 상수의 두 배이므로 다음 결절에 도달하는 탈분극은 약 14 mV이고, Y의 도달 여유는 0보다 작다.
- ③ Y가 X보다 지름이 큰데도 길이 상수가 짧은 것은, Y에서 막 저항이 내부 저항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값이 X보다 작기 때문이다.